기아, 3분기 글로벌 최다 판매…현대차는 내수 급감

85만대 7.7%↑…스포티지·셀토스順

국내 완성차 5개사 전년比 4.7% 감소

현대차 국내 25.7%·해외 13.9% 줄어

기아가 3분기 글로벌 최다 판매 실적을 올렸다. 사진은 스포티지·쏘렌토·카니발 블랙 에디션 하츠투하츠 협업. 〈기아 제공〉

기아가 1962년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이래 역대 3분기 글로벌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기아는 해외 판매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7개월째 성장세를 보인 반면 현대차는 내수 부진으로 판매가 급감했다.

5일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실적 발표를 취합한 결과 이들의 9월 글로벌 판매는 64만6천502대로, 전년 동월(67만8천187대) 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판매는 추석 연휴로 조업·영업 일수가 줄어든 탓에 5개사 모두 역성장하며 작년 동월 대비 19.7% 감소한 10만101대에 그쳤다. 다만 현대차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겪은 8월과 비교하면 25.5% 늘었다.

해외 판매는 54만6천401대로 작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기아(7.7%)와 한국GM(79.5%), KG모빌리티(KGM·3.5%)는 해외 판매가 늘었으나 현대차(-13.9%)와 르노코리아(-5.8%)는 감소했다.

해외 판매 실적에 따라 희비도 엇갈렸다.

현대차는 국내 4만9천22대, 해외 25만8천976대 등 총 30만7천998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6.0% 감소한 수준이다. 국내 판매는 25.7% 감소했고, 해외 판매도 13.9% 감소했다.

반면 기아는 9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28만1천984대를 판매했다.

국내 판매량은 4만5천705대로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했으나 해외는 23만5천457대로 7.5% 증가했다. 특수차량(방산) 판매는 79.9% 증가한 822대다

특히 기아는 3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총 84만6천764대를 판매하며 1962년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이래 역대 3분기 글로벌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차종별로는 스포티지(5만1천884대)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고 셀토스(3만7천950대)와 쏘렌토(2만1천115대)가 뒤를 이었다.

한국GM의 경우 9월 국내 판매는 40.9% 급감했으나 해외 판매가 79.5% 급증하며 전체적으로 작년 동월보다 73.3% 증가했다.

르노코리아는 작년 동월 대비 24.7% 감소한 6천566대를 판매했다. 내수는 45.3% 감소했고 수출도 5.8% 줄었다.

KGM은 16.7% 감소한 8천863대를 판매했다. 국내 판매량은 48.8% 감소했으나 해외 판매량은 3.5% 증가했다.

9월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랜저가 8천898대 팔리며 기아 쏘렌토(6천957대·3위)를 밀어내고 다시 베스트셀링카를 차지했다. 2위는 현대차 아반떼(7천305대)였다. 이어 기아의 스포티지(5천497대), 셀토스(5천422대), 카니발(5천286대), 레이(4천230대)가 나란히 상위권에 포진했다.

올해 1-9월 국내 누적 판매 1위는 기아 쏘렌토(7만4천933대)다.

기아 관계자는 "해외에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동화 차량 수요에 맞춘 판매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판매 호조를 보이며 역대 3분기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며 "4분기에도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유럽에서는 전기차 등 전동화 차량을 중심으로 판매 성장 모멘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벤츠 E-클래스가 G80보다 싸"…수입 중고차 감가 폭 크다

첫차 '10월 중고차 시세전망'

수입 감가율 -71%·국산 -59% 전망

9월 수입 판매 1위는 '테슬라 모델 3'

모바일 중고차 플랫폼 '첫차'가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10월 중고차 시세 전망'을 발표했다.

5일 첫차에 따르면 9월 첫차에서 거래된 2016-2021년식(5-10년차) 중고차의 국산·수입 판매량 상위 10개 모델을 분석한 결과, 수입차 TOP 10은 신차 대비 평균 -71%로 국산(-59%)보다 감가 폭이 커 10월 구매 시 가격 메리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입 인기 모델은 국산 인기 모델보다 낮은 시세에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벤츠 E-클래스 5세대(E250 아방가르드)의 10월 평균 시세는 2천770만원으로, 국산 판매 1위 제네시스 올 뉴 G80(2.5 GDI AWD)의 3천55만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수입 2위 포드 익스플로러 5세대(2.3 리미티드 AWD)는 평균 1천354만원(최저 1천34만원)으로 국산 2위 현대 올 뉴 아반떼 CN7(1.6 GDi 모던)의 1천481만원보다 낮고, 신차 대비 -82%로 TOP 10 중 감가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BMW 3시리즈 6세대(320d) 역시 평균 1천309만원, 신차 대비 -81%가 예상된다.

2026년 10월
국산&수입 중고차 판매순위 · 시세

국산차

	모델	세부모델	연료	시세	신차대비
1	올 뉴 G80	2.5 GDI AWD	가솔린	2,597 ~ 3,513	-53%
2	올 뉴 아반떼(CN7)	1.6 GDI 모던	가솔린	1,111 ~ 1,851	-41%
3	올 뉴 모닝 3세대	럭셔리	가솔린	575 ~ 1,068	-57%
4	아반떼 AD	1.6 GDI 챌린 플러스	가솔린	645 ~ 1,198	-62%
5	카니발 4세대(KA4)	디젤 9인승 시그니처	디젤	1,992 ~ 2,842	-51%
6	더 넥스트 스파크	LTZ	가솔린	383 ~ 712	-74%
7	올 뉴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디젤	763 ~ 1,309	-77%
8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가솔린	951 ~ 1,586	-71%
9	더 뉴 레이	프레스티지	가솔린	824 ~ 1,373	-48%
10	모하비 더 마스터	디젤 3.0 마스터즈	디젤	2,244 ~ 3,086	-57%

수입차

	모델	세부모델	연료	시세	신차대비
1	모델 3	롱 레인지	전기	2,534 ~ 3,430	-60%
2	익스플로러 5세대	2.3 리미티드 AWD	가솔린	1,034 ~ 1,673	-82%
3	CLS-클래스 3세대	CLS450 4MATIC AMG Line	가솔린	3,412 ~ 4,617	-69%
4	익스플로러 6세대	2.3 리미티드 AWD	가솔린	1,966 ~ 2,751	-67%
5	E-클래스 5세대	E250 아방가르드	가솔린	2,330 ~ 3,201	-64%
6	5시리즈 7세대	530i xDrive M 스포츠 플러스	가솔린	2,231 ~ 3,086	-72%
7	C-클래스 4세대	C220 d 아방가르드	디젤	1,265 ~ 1,938	-78%
8	S-클래스 7세대	S580L 4MATIC	HEV	6,605 ~ 8,937	-70%
9	GLE-클래스 2세대	GLE450 4MATIC	가솔린	4,322 ~ 5,847	-64%
10	3시리즈 6세대	320d	디젤	982 ~ 1,636	-81%

9월 수입 중고차 판매 1위를 차지한 테슬라 모델 3(롱 레인지)는 10월 평균 2천982만원, 신차 대비 -60%로 수입 TOP 10 중 감가 폭이 가장 작을 것으로 보인다. TOP 10 중 유일한 전기차다. 벤츠는 CLS-클래스 3세대(CLS450 4MATIC AMG Line, 3위)를 비롯해 5개 모델이 이름을 올렸다.

국산 중고차는 가격대가 넓게 분포할 전망이다. 아반떼 CN7은 신차 대비 -41%로 국산 TOP 10 중 감가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차는 기아 올 뉴 모닝 3세대(럭셔리, 3위) 최저 575만원,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LTZ, 6위) 최저 383만원, 기아 더 뉴 레이(프레스티지, 9위) 최저 824만원부터 구매 가능할 전망이다.

주행거리 10만㎞ 이하의 2019-2026년식 친환경차 인기 순위에서는 테슬라 모델 3(롱 레인지)와 모델 Y(RWD)가 1·2위, 현대 디 올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1.6 캘리그래피)가 3위에 올랐다. TOP 10 중 전기차 3개 모델은 모두 테슬라, 하이브리드 6개 모델은 모두 국산 브랜드다.

첫차 데이터센터 관계자는 "5-10년차 수입 중고차는 신차 대비 평균 71% 감가된 수준에서 거래돼 일부 모델은 국산 인기 차종보다 낮은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예산으로 고를 수 있는 차급과 브랜드의 폭이 넓은 만큼 연식과 트림별 시세를 꼼꼼히 비교해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현대차, 충전기 구독 서비스 '마이홈차저' 출시

가정용 월 최소 7만원대 서비스 이용

전용 앱으로 충전이력·사용량 확인

현대차 충전기 구독 서비스 마이홈차저.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충전 부담은 낮추고, 고객 편의성은 높인 구독형 충전 서비스를 선보인다.

5일 현대차에 따르면 충전사업자 채비와 협력해 가정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구독 서비스 '마이홈차저'를 출시했다.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소유하고 단독 주택이나 연립 주택 등에 거주해 전용 주차 공간을 보유한 고객은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이홈차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7kW 가정용 완속형 전기차 충전기 기기와 설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월 최소 약정 충전량은 300kWh, 충전 요금은 kWh당 245원으로 고객은 기기 및 설치비 없이 최소 약정량 기준 월 7만3천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고객이 3년간 월 최소 약정량만큼 이용할 경우 기존 현대차 홈충전기 상품 이용 대비 약 67만원, 외부 채비 급속 충전기 이용 대비 약 153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약정이 끝난 고객은 별도 반납 절차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전기차 충전기 소유권을 갖게 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채비 앱이나 채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현대·제네시스 전기차 보유여부를 인증하면 된다.

이후 현장 실사를 통해 충전기를 설치하고 안전검사를 거치면 즉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다.

고객은 전용 채비 앱을 통해 충전이력과 사용량, 잔여 약정 충전량 등 다양한 충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구독 서비스는 기기부터 설치, 충전까지 월 7만원대로 전기차 고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충전 방식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 부담은 낮추고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